

레이텍(L^AT_EX)에서 표, 그림, 참고 문헌 넣기

최영한 (한국과학기술원)

수학 논문이나 수학 교육 논문을 쓸 때 L^AT_EX을 쓰는 것이 좋다. 이 글은 2002년 8월 30~31일 서울대학교에서 한국수학교육학회 주최 “제 28 회 전국수학교육연구대회”에서 있을 워샵의 교안으로 만들었다. L^AT_EX을 쓸 때 그림 파일을 입력하는 방법과 표 만들기 등에 대하여 알아 본다. 그리고 참고 문헌의 작성과 참고 문헌을 본문에 인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룬다.

I. 들어가는 말

이 글은 2001년 1월 16~17일 단국대학교(서울)에서 한국수학교육학회 주최로 개최한 “제26회 전국수학교육연구대회”에서 발표한 글(최영한 [5] 참조), 4월 21일 동의대학교(부산)에서 개최된 “대한수학회 2001년도 봄 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한 글(최영한 [6] 참조), 5월 26일 목원대학교(대전)에서 개최된 “2001년도 충청수학회 정기 총회 및 연구발표회”의 초청 강연에서 발표한 글(최영한 [7] 참조), 6월 30일 부산교육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한수학교육학회 2001년도 춘계교육학 연구논문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글(최영한 [8] 참조), 8월 24~25일 강원대학교(춘천)에서 한국수학교육학회 주최로 개최한 “제27회 전국수학교육연구대회”에서 발표한 글(최영한 [9] 참조), 또 2002년 2월 22~23일 숭실대학교(서울)에서 개최한 “제28회 전국수학교육연구대회”에서 발표한 글(최영한 [10] 참조) 등에 이어진다.

T_EX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또 설치 패키지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할 수 있는 환경, 설치법, DVI 미리보기, 편집기, 쓰는 방법 등이 조금씩 다르다. 필자의 경험에서 윈도우(98에서 XP까지) 환경과 궁합이 잘 맞고 쓰기 쉬우면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영문 L^AT_EX 패키지: MiK_TE_X2.1(“DVI 미리보기”로 Yap이 따라 온다.)

편집기(윈도우 셸): WinEdt5.3

한글 L^AT_EX 패키지: HPACK(HL_ATeX0.991을 패키지로 만든 것)

이다.

필자가 T_EX(텍)과 인연을 맺은 것은 오래되었다. 사실 1970년대 후반 부터 T_EX을 배우려고 마음 먹었다. 연구실을 함께 쓰던 동료들이 TeX을 써서 논문을 쓰는 데 필자는 “볼 타

자기”로 그것도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논문을 썼다. 컴맹이었으니 할 수 없었다. 1980년 대에도 “볼 타자기”를 썼다. 1990년인가 Mac을 한 대 샀다. 그러나 초기 $\text{T}_{\text{E}}\text{X}$ 과 $\text{L}_{\text{A}}\text{T}_{\text{E}}\text{X}$ (레이텍)은 DOS를 알아야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까다로운 사용법 때문에 배울 엄두를 못 내고 모두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여 $\text{T}_{\text{E}}\text{X}$ 파일들을 만들었다.

그후 1995년인가 PC를 구입하였다. 우선 $\mathcal{A}\mathcal{M}\mathcal{S}$ Preprint 스타일만이라도 배우기로 하고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들어 배포한 한 $\text{T}_{\text{E}}\text{X}1.5$ 를 구하였다. 모두 3.5인치 디스켓 13장으로 되어 있는 설치 패키지를 구하여 PC에 깔려고 하였으나 프로그램이 제대로 깔리지도 않았다. 그래서 차재춘 교수가 개발한 h $\text{T}_{\text{E}}\text{X}n$ 을 구해서 깔았다. (그 후 역시 차재춘 교수가 개발한 h $\text{L}_{\text{A}}\text{T}_{\text{E}}\text{X}p$ 도 남의 도움으로 깔았다.) 이 패키지는 한 $\text{T}_{\text{E}}\text{X}1.5$ 를 약간 변형한 것으로 지금도 아쉬운 대로 쓸 수 있으나 그 후 급속도로 발전한 $\text{L}_{\text{A}}\text{T}_{\text{E}}\text{X}$ 환경 때문에 지금은 별로 쓰는 사람이 없다.

그후 인터넷을 뒤져 MiK $\text{T}_{\text{E}}\text{X}1.20$ 패키지와 WinEdt4.0 프로그램을 찾아내었고 이것을 다운로드하여 깔았다.

처음에는 MiK $\text{T}_{\text{E}}\text{X}$ 에 한글 $\text{L}_{\text{A}}\text{T}_{\text{E}}\text{X}$ 을 함께 쓸 수 있도록 까는 것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과정에서 그나마 깔려 있던 h $\text{L}_{\text{A}}\text{T}_{\text{E}}\text{X}p$ 도 날려버렸다. 그래서 새로 h $\text{L}_{\text{A}}\text{T}_{\text{E}}\text{X}p$ 설치 패키지를 구하여 직접 설치하려 하였다. 그러나 모든 설명이 DOS에 맞추어져 있어서 설치법을 따라가면서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H $\text{L}_{\text{A}}\text{T}_{\text{E}}\text{X}-0.991$ 을 알아 보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았다. 그래서 영문 $\text{L}_{\text{A}}\text{T}_{\text{E}}\text{X}$ 은 WinEdt 창에서 MiK $\text{T}_{\text{E}}\text{X}2.0$ 을 쓰고 한글 $\text{T}_{\text{E}}\text{X}$ 은 h $\text{T}_{\text{E}}\text{X}n$ 을 쓸 수 밖에 없었다.

WinEdt에서 MiK $\text{T}_{\text{E}}\text{X}$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문으로만 된 수학 논문을 다루는 것은 “한글 97”보다 쉬웠다. 그래서 2001년 한 해 서울, 부산, 대전, 춘천 등지를 다니면서 “영문 $\text{L}_{\text{A}}\text{T}_{\text{E}}\text{X}$ 의 설치와 사용법”을 여러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II. MiK $\text{T}_{\text{E}}\text{X}-\text{KTUG}$

그러는 동안 MiK $\text{T}_{\text{E}}\text{X}2.1$ 패키지가 나왔다. 설치 방법이 MiK $\text{T}_{\text{E}}\text{X}2.0$ 보다도 쉬워졌다. 그래서 한글 $\text{L}_{\text{A}}\text{T}_{\text{E}}\text{X}$ 패키지도

`hlatex-0991-basic.exe`

를 구하여 설치하였다.

이 패키지는 홍석호 교수가 H $\text{P}\text{A}\text{C}\text{K}$ 으로 만들어 쉽게 MiK $\text{T}_{\text{E}}\text{X}$ 과 함께 쓸 수 있게 만들고 이제는 “MiK $\text{T}_{\text{E}}\text{X}-\text{KTUG}$ ”에 포함되어 한꺼번에 “한글-영문 통합 $\text{L}_{\text{A}}\text{T}_{\text{E}}\text{X}$ 패키지”를 깔 수 있게 되었다.

<http://project.ktug.or.kr/miktex-ktug/>

에 연결하여 “내려 받기”를 잘 읽은 후

한글 설치 마법사:

영문 설치 마법사:

중 하나를 연결하면 된다. (설치 마법사만 다를 뿐 기능은 같다. 모두 “MiKTeX-KTUG” 패키지를 설치할 수 있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MiKTeX-KTUG을 설치하기 전에 깔았던 다른 영문 L^AT_EX 패키지나 한글 LaTeX은 모두 지우는 것이 좋다. 홍석호 교수가 쓴 “MiKTeX2.1 설치 안내”

http://physics.kyunghee.ac.kr/~reds/Hpack_Project/miktex2.1.01.htm

의 처음 부분(0. 설치에 앞서...)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또 Win98 과 Win2000 에서는 “vcredist.exe 를 실행하라”는 메시지가 나올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 나오지 않는 것은 다른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에서 필요한 DLL 파일들이 이미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인 것 같다. MS-Office2000 또는 Acrobat Reader 등이 설치되어 있으면 이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것 같다. Acrobat Reader는 무료 소프트웨어이고 또 PDF 파일을 볼 때 필요하므로 미리 깔아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순수 수학 논문”(AMS 스타일 학술지 논문: 대한수학회, 강원경기수학회, 충청수학회, 호남수학회,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B, 미국수학회 등)만 작성하고 한글이 필요 없는 사람에게는

최소(S) (필요한 디스크 용량: 50MB 이상)

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그 외의 분은

보통(L) (필요한 디스크 용량: 100MB 이상)

또는

전체(T) (필요한 디스크 용량: 500MB 이상)

을 추천한다. 한국물리학회 논문, 한국수학교육학회 시리즈 D, 전산 논문, 학위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전체(T)”가 좋다. (Ctan 또는 다른 곳에서 클래스나 스타일 파일 찾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어느 패키지를 설치하더라도 DVI 미리보기로 Yap이 따라온다. MiKTeX를 쓰실 때는 다른 DVI 미리보기(예: T_EXPlus)는 쓰지 않는 것이 좋다. MiKTeX을 깔았을 때 가장 안심하고 쓸 수 있는 편집기(윈도우 셸)는 WinEdt이다. (WinEdit가 아니고 WinEdt이다. 둘째 아이(i)가 없어야 한다. 청주의 한 교수는 인터넷에서 Winedit를 찾아 들어 갔더니 어떤 사이트에 연결되어서 90불 내고 WinEdit라는 프로그램을 샀는데 이것은 T_EX편집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 둘째 아이(i)가 있으면 안된다.) WinEdt는 평생 사용료(등록비)가 일반 40불, 학생 30불이고, 한 달간 시험 사용하다가 등록하여도 된다. WinEdt5.3의 설치 방법은

<http://www.winedt.com>

에 접속하여 사이트가 뜨면 오른쪽 하얀 바탕에서

WinEdt 5.3: [Build: 20020323]

를 클릭하면 WinEdt5.3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3개 있다. 여기서 아무 곳이나 클릭하면 `winedt53.exe` (4,052Kb)가 다운로드된다. `winedt53.exe`는 설치 패키지가 있는 인터넷의 사이트를 연결하여 바로 설치하여 줍니다. (설치 Wizard가 나타나서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진행한다.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작동을 하지 않다.) 즉

`c:/Program Files`

아래에 WinEdt Team 디렉터리를 만들고 그 아래에 다시 WinEdt 디렉터리를 만듭니다. 설치가 끝나면 “WinEdt 바로가기”가 바탕화면에 나타난다. WinEdt를 등록하는 방법은 WinEdt 창에서 Help 메뉴를 클릭하여 메뉴가 뜨면

On-Line Registration

을 클릭한다. (이미 등록 번호를 가진 사람은 “Register”를 클릭한다). 한참 내려가면 등록의 종류(단체, 개인, 학생), 등록비, 링크 등을 표시한 표가 나타난다. 여기서 등록비 오른쪽의 네 자리 숫자(파란색 링크)를 클릭하면 등록 Form이 나타난다. WinEdt를 사용할 때

- \TeX ify 도중 Dos 창에서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면 e와 Enter 키를 차례로 치거나,
- Yap 창에서 DVI 파일의 고치고 싶은 곳을 더블클릭하면

편집기로 가는 데 $\text{MiK}\TeX$ 은 원래 노트패드에서 편집하도록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노트패드가 열린다. 이것을 WinEdt에서 열리게 하려면 약간의 설정이 필요하다.

<http://www.ktug.or.kr/jsboard/read.php?table=contrib&no=46&page=1>

와

<http://www.ktug.or.kr/jsboard/read.php?table=contrib&no=39&page=1>

클릭하고 거기에 나타난 글들을 참고하면 된다. 그림을 넣는 것은 좀 익숙한 다음 “도은이네 집”

<http://www.doeun.pe.kr/uselatex/ref-files/gfaq/>

에서 찾으시면 된다.

III. 그림 파일 불러 오기

$\text{L}\text{A}\text{T}\text{E}\text{X}$ 파일을 컴파일하여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DVI 파일, PDF 파일 또는 PS 파일에 그림이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EPS(Encapsulated PostScript) 이외의 다른 확장자를 가진

그림 파일은 EPS 파일로 바꾸는 것이 무난하다. 그러나 EPS 파일이라하여 모두 쉽게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림을 그리고 변환하는 패키지는 여러 가지가 있다. ai, jpg, gif, wmf, pcx, png 등의 그림은 Illustrator에서 열어 다시 eps 파일로 저장하면 된다. eps 또는 ps 파일이 GSView에서는 열리지만 L^AT_EX에서 불러들이지 못할 때도 Illustrator에서 끌어다 열고 다시 저장한다. 간혹 Illustrator에서 끌어다 열 수 없는 그림도 있다. 이 경우는 ACD See 또는 PhotoShop 등으로 열어 bmp 파일로 다시 저장한다. 만약 여의치 않으면 그림판, SnagIt 등을 사용하여 bmp 파일로 만들고 그림들을 Illustrator에서 열어 다시 eps 파일로 저장한다. L^AT_EX파일에서는 eps 파일 이외의 그림을 넣는 방법은 무척 까다롭기 때문이다. (Photo Editor, Imaging, 그림판, ACD See, SnagIt에서는 eps 파일로 저장이 되지 않으며 Illustrator가 아닌 곳에서 eps 파일로 저장한 그림은 L^AT_EX에서 불러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EPS 파일로 된 그림을 불러 오려면 Usepackage로 graphicx.sty 파일이나 epsfig.sty 파일을 써야하는 데 이들은 모두 MiK_TE_X 패키지 속에 있다.

우선 “도은이네 집” 사이트

<http://www.doem.pe.kr/uselatex/ref-files/gfaq/>

을 클릭하면 새로운 페이지

L^AT_EX에서의 그림 처리-몇 가지 TIP

이 나타난다.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이다. graphicx가 더욱 다양한 옵션을 쓸 수 있어 좋다. 그림 환경 쓰는 법도 Usepackage에 따라 조금 다른데 혼용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예로써 그림 2에 나타난 그림은

```
\usepackage{graphicx}
```

을 사용하였는 데

```
\begin{figure}[t]
\includegraphics[width=140mm]{fig5.eps}
\caption{Bibliography Items의 대학상자} \label{fig5}
\end{figure}
```

와 같이 입력하였다. 한 편

```
\usepackage{epsfig}
```

에서는

```
\begin{figure}[h!]
\epsfig{file=buffer.eps,width=5cm}
\caption{Buffer}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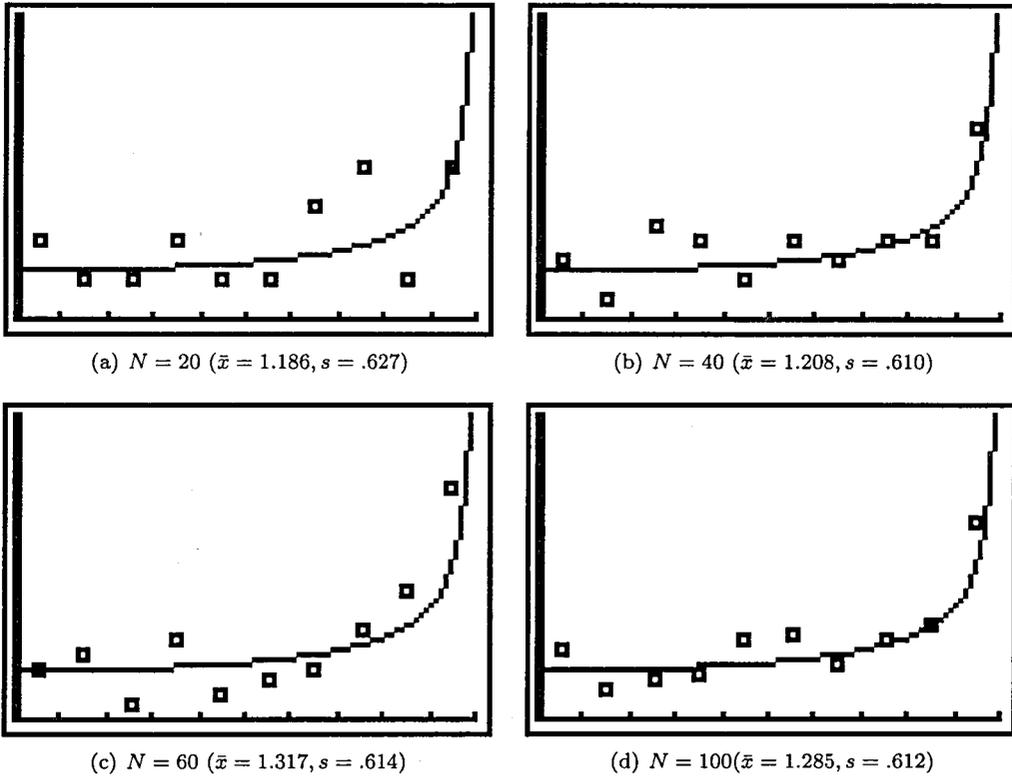


그림 1. $f_L(l)$ and the adjusted frequency histogram of the simulated L_1

`\end{figure}`

와 같이 그림 파일 `buffer.eps`을 넣는다. 다음은 `subfigure`에 대하여 알아 보자. 이 때는 `Usepackage`로 `subfigure`를 써야 한다.

```
\begin{figure}[t]
\centering
\subfigure[ $N=20$  ( $\bar{x}=1.186, s=.627$ )]
{\includegraphics[width=.47\linewidth]{fig5a.eps}}\hspace 4mm
\subfigure[ $N=40$  ( $\bar{x}=1.208, s=.610$ )]
{\includegraphics[width=.47\linewidth]{fig5b.eps}}\hspace 4mm
\subfigure[ $N=60$  ( $\bar{x}=1.317, s=.614$ )]
{\includegraphics[width=.47\linewidth]{fig5c.eps}}\hspace 4mm
\subfigure[ $N=100$  ( $\bar{x}=1.285, s=.612$ )]
```

```
{\includegraphics[width=.47\linewidth]{fig5d.eps}} \vskip -0.3cm
\caption{${f_L(1)}$ and the adjusted frequency histogram of the
simulated $L_1$}
\end{figure}
```

로 입력하면 그림 1과 같이 나타난다.

IV. 행렬과 표

행렬과 표를 넣는 방법은 &와 \\를 잘 사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같은 맥락이다. 우선 쉬운 행렬부터 알아 보자.

```
$$
\begin{matrix}
a_{11} & a_{12} & a_{13} \\
a_{21} & a_{22} & a_{23}
\end{matrix}
$$
```

로 입력하면

$$\begin{matrix} a_{11} & a_{12} & a_{13} \\ a_{21} & a_{22} & a_{23} \end{matrix}$$

로 나타난다. 만약 matrix 대신 pmatrix 또는 bmatrix로 바꾸면 위의 행렬은 각각

$$\begin{pmatrix} a_{11} & a_{12} & a_{13} \\ a_{21} & a_{22} & a_{23} \end{pmatrix}$$

또는

$$\begin{bmatrix} a_{11} & a_{12} & a_{13} \\ a_{21} & a_{22} & a_{23} \end{bmatrix}$$

로 나타난다.

```
\begin{table}
\begin{center}
\begin{minipage}{4.7cm}
\begin{tabular}{@{}cccl@{}}
{Figure} & {${hA}$} & {${hB}$}, (*) & %%%footnote%%
& \multicolumn{1}{c@{}}{${hC}$} \\ \[3pt]
2 & $\exp\;(\pi \mathrm{i} x)$ \\
& & $\exp\;(\pi \mathrm{i} y)$ & & $0$ \\
3 & $-1$ & & $\exp\;(\pi \mathrm{i} x)$ & & $1$ \\
\end{tabular}
\end{minipage}
\end{center}
\end{table}
```



```

10 & 40 & 50 & (0.187) & (3.5912) & 3.15 & (0.381) \\ \hline
&&&&&& \[-3mm]%이 맹을 없애면 숫자가 워도 붙는다
20 & 30 & 50 & (0.153) & (3.5247) & 3~~~~ & (0.310) \\ \hline
&&&&&& \[-3mm]%이 맹을 없애면 숫자가 워도 붙는다
30 & 20 & 50 & (0.147) & (3.3473) & 2.7~~ & (0.434) \\ \hline
\end{tabular}
\end{table}

```

와 같이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표를 얻는다.

TABLE 2. Measured thickness, density, optical band gap, and Urbach energy of different glass samples.

Sample composition Mole% MnO-CdO-P ₂ O ₅			Thickness <i>d</i> (cm)	Density $\rho=m/V$ (g/cm ³)	Optical bandgap <i>E_{opt}</i> (eV)	Urbach energy ΔE (eV)
00	50	50	(0.163)	(3.8207)	3.42	(0.574)
10	40	50	(0.187)	(3.5912)	3.15	(0.381)
20	30	50	(0.153)	(3.5247)	3	(0.310)
30	20	50	(0.147)	(3.3473)	2.7	(0.434)

V. 본문에서 참고 문헌의 인용

Bib 파일과 “thebibliography” 환경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미 최영한 [5, pp. 15-24]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본문에서 참고 문헌의 인용에 대해서만 다룬다.

Bib 파일에 있다고 하여 논문 끝의 참고 문헌에 자동으로 수록되는 것은 아니다. 본문에 인용하여야 한다. 또 본문에 인용하였는데 Bbl 파일에 문헌 Item이 없으면 DOS 창(또는 Log 파일)에 해당 key가 정의 되지 않았다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이 때는 Bib 파일을 고치거나 T_EX파일에서 \ref{ }의 { } 속에 있는 key를 고쳐야 한다.

만약 본문에는 인용되지 않았지만 논문 끝의 참고 문헌에 꼭 넣고 싶으면 T_EX 파일의 \begin{document} 와 \maketitle 사이의 적당한 곳에 \nocite{ }를 쓰고 { } 안에 cite key를 넣으면 된다.¹⁾

본문에서의 인용은 비교적 간단하다. 가령 Bib 파일에 있는

¹⁾ BibT_EX을 실행할 때 Bib 파일에 있는 문헌을 몽땅 참고 문헌에 넣고 싶으면 { }속에 *를 넣으면 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MiKT_EX패키지 속에 들어 있는 BibT_EX 패키지에서는 이 기능이 실행되지 않고 있다.

@BOOK{bh,

(Bbl 파일에서는 `\bibitem{bh}`)을 인용하려면 Bhatia and Szegö²`\cite{bh}` 또는 간단히 `\cite{bh}`” 등으로 인용하면 된다.

참고 문헌을 인용하려고 T_EX 파일에서 `\cite{ }`와 같이 입력하면 “Bibliography Items ()”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난다. 윗칸은 비어 있고 아랫칸은 이른바 key들이 나와 있다. 원하는 key를 두 번 클릭하면 `\cite{ }`의 `{ }`속에 입력된다. 이러한 기능을 쓰기 위해서는 현재 작업하고 있는 T_EX 파일 내에 thebibliography 환경이 있거나 Bib 파일이나 Bbl 파일이 있어야 한다. T_EX 파일에서 `\cite{ }`를 입력하면 “Bibliography Items ()”의 대화상자는 나타난다.²⁾ T_EX 파일 내에 thebibliography 환경이 없으면 Bib 파일이나 Bbl 파일을 WinEdt 창에 함께 열어 놓고 `\cite{ }`를 입력하여야 “Bibliography Items ()”라는 대화상자 속에 cite key들이 나타난다. 여기서

WinEdt에서는 cite key를 따로 기록하거나 외울 필요가 없다. thebibliography 환경이 만들어 졌으면 본문에서 `\cite{ }` 또는 `\cite[...]{ }`를 입력하면 “Bibliography Items ()”라는 대화상자(그림 2 참조)가 나타난다. 대화상자의 윗 칸은 비어 있고, 아래칸에는 Bibliography Items (key)들이 나와 있다. 원하는 key를 두 번 클릭하면 `\cite{ }` 또는 `\cite[...]{ }`의 `{ }`속으로 key가 입력된다. 따라서 Bib 파일을 먼저 만들거나 T_EX 파일 뒤쪽에 thebibliography 환경을 먼저 만드는 것이 편리하다.

`\cite{ }`의 `{ }`속에 key를 입력할 때 대화상자 “Bibliography Items ()”를 이용하려면 thebibliography 환경이 들어 있는 파일을 WinEdt 창에 불러 놓아야 한다. 우리가 샘플로 쓰는 Paper.tex 파일 (“AMS Paper Sample” 단추 클릭)을 WinEdt 창에 띄우고 “Ctrl+I”를 눌러보자. “Incremental Search”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Search for: 다음의 빈칸에 `\ci`를 입력하여 보자. “Enflo `\cite{ }`”라는 곳이 선택될 것이다. OK 단추를 눌러 “Incremental Search”상자를 닫고 “Enflo `\cite{ }`” 다음에 커서를 갖다 두고 “)”를 입력하여 보자. 아무 반응이 없을 것이다. 방금 입력한 “)”을 지우고 Paper 디렉터리를 열어 Xbib.bib(또는 Paper.bbl) 파일을 WinEdt 창에 띄우고 다시 Paper.tex 파일을 활성화(Paper.tex 이라는 (견출 Tab)을 클릭하면 된다.)하자. 아직도 “Enflo `\cite{ }`” 다음에 커서가 감박거릴 것이다. 여기에 “)”를 입력하자. “Bibliography Items (40)”라는 대화상자³⁾가 나타날 것이다. “Enf 87”을 두 번 클릭하면 Xbib.bib 파일(또는 Paper.bbl 파일)의 해당 Bibitem을 보여준다. 이때 Enter를 치면 Enf87이 `{ }`속에 입력된다. Paper.tex

²⁾ ()속에 나타난 숫자는 Bibliography Item의 갯수이다. 가령 Xbib.bib파일을 열어 두면 (40)으로 나타나고, Paper.bbl파일을 열어 두면 (19)로 나타난다.

³⁾ 만약 Paper.bbl 파일을 WinEdt창에 열어 두었다면 “Bibliography Items(19)”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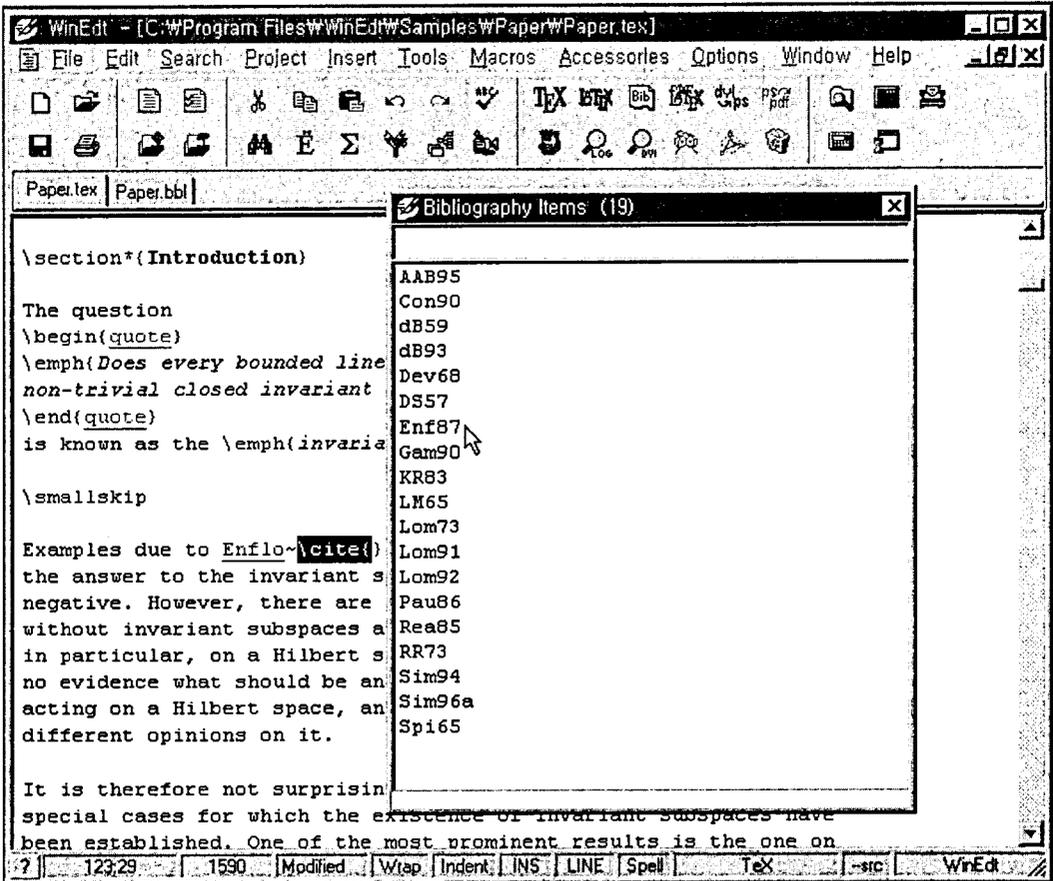


그림 2. Bibliography Items의 대화상자

파일을 닫으면 저장할 것이냐고 묻는다. “Confirm” 대화상자에서 No 단추를 누르면 Paper.tex은 닫힌다. Xbib.bib(또는 Paper.bbl) 파일도 닫자.

만약 참고 문헌의 특정한 쪽, 장, 정리, 수식 등을 인용하려면

```

\cite[p. 76]{bh},
\cite[pp. 76--78]{bh},
\cite[Chap. 5]{bh},
\cite[Sec. 2]{bh},
\cite[Theorem 2]{bh},
\cite[Eq. (1)]{bh}
    
```

등으로 입력하면 된다. 컴파일 후 DVI 파일에서는 [1, p. 76], [1, pp. 76-78], [1, Chap. 5], [1, Sec. 5], [1, Theorem 2], [1, Eq. (1)]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Definition 1 (cf. [9]). ...

Lemma 2.1 (Mittelbach [9, p. 125]). ...

와 같이 선언적 문단의 앞머리에 부수적인 설명으로 참고 문헌의 인용을 넣어 보자. 이것은 비교적으로 간단하다.

```
\begin{defn}[cf. \ref{1a}] ... \end{defn}
\begin{lem}[{Mittelbach \ref[p.\ 125]{mi}}] ... \end{lem}
```

등으로 하면 DVI 파일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정리류 환경을 따르는 다른 선언적 문단의 앞머리에 넣는 방법은 제 ??절의 예 8 에서 다루었다. 이제 본 논문의 \TeX 파일(예: my first.tex)에 가서 참고 문헌의 인용을 연습하여 보자.

참 고 문 헌

- [1] 고기형: 한글과 \TeX . 청문각, 서울, 1995.
- [2] 심송용, 이승만: \LaTeX 으로 쓴 \LaTeX 안내. 경문사, 서울, 1996.
- [3] 은광희: 한글 \LaTeX 길잡이 (0.99판). Preprint, 1999.
- [4] 최영한: 수학교육 논문 작성법. In: 송순희 교수 정년 퇴임 기념 대한수학교육학회 1999 년도 춘계 수학교육연구발표대회 (1999.6.26., 이화여자대학교) 논문집 (pp. 403-414). 대한수학교육학회, 서울, 1999.
- [5] ———: 순수 및 응용 수학 논문의 참고 문헌 작성 요령.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 논문집 11 (2001), 1-25.
- [6] ———: 수학 논문의 정리류(Theorem-like)를 쓰는 요령. 대한수학회 2001년도 봄 연구발표회(2001년 4월 21일, 동의대학교, 부산)에서 발표한 글. Preprint.
- [7] ———: Non-local (영문) \LaTeX 의 설치 및 사용법. 2001년도 충청수학회 정기 총회 및 연구발표회 (2001년 5월 26일, 목원대학교, 대전)의 초청강연에서 발표한 글. Preprint.
- [8] ———: 수학 교육 논문도 \LaTeX (레이텍)으로 쓰는 것이 좋다. In: 대한수학교육학회 2001 년도 춘계 수학교육연구발표대회 (2001.6.29., 부산교육대학교) 논문집 (pp. 309-331). 대한수학교육학회, 서울, 2001.
- [9] ———: \LaTeX 의 설치 및 사용법.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논문집 12 (2001), 509-526
- [10] ———: 영문 및 한글 \LaTeX 의 설치 및 사용법. 한국수학교육학회지 시리즈 E 수학교육논문집 13 (2002), 775-794

- [11] Amer. Math. Soc.: *User's Guide for the amsmath Package* (Version 2.0). Amer. Math. Soc., Providence, Rhode Island, 1999.
[c:\texmf/doc/latex/amsmath 디렉터리에서 amsldoc.dvi 파일을 찾아 인쇄하면 된다.]
- [12] ———: *Instruction for Preparation of Papers and Monographs $\mathcal{A}\mathcal{M}\mathcal{S}$ - $\mathcal{L}\mathcal{T}\mathcal{E}\mathcal{X}$* . Amer. Math. Soc., Providence, Rhode Island, 2000.
[c:/texmf/doc/latex/amscs 디렉터리에서 instr-1.dvi 파일을 찾아 인쇄하면 된다.]
- [13] ———: *Using the amsthm Package*, Version 2.07. Amer. Math. Soc., Providence, Rhode Island, 2000.
[c:/texmf/doc/latex/amslatex 디렉터리에서 amsthdoc.dvi 파일을 찾아 인쇄하면 된다.]
- [14]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4th ed.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Washington, DC, 1994.
- [15] J. Gibaldi: *MLA Handbook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8th ed. Modern Language Association of America, New York, NY, 1995.
- [16] Y. H. Goo: A characterization of asymptotic stability in dynamical polsystems. *J. Korea Soc Math. Edu. Ser. B Pure Appl. Math.* **7** (2000), no. 2, 129–135.
- [17] Michel Goossens, Frank Mittelbach, and Alexander Samarin: *The $\mathcal{L}\mathcal{T}\mathcal{E}\mathcal{X}$ Companion*. Addison-Wesley, Reading, Massachusetts, 1994.
- [18] B. J. Kim: Stability theorem for the Feynman integral applied to multiple integrals. *J. Korea Soc Math. Edu. Ser. B Pure Appl. Math.* **8** (2001), no. 1, 71–78.
- [19] Donald E. Knuth: *The $\mathcal{T}\mathcal{E}\mathcal{X}$ book*. Addison-Wesley, Reading, MA, 1994.
- [20] Helmut Kopka and Patrick W. Daly: *A Guide to $\mathcal{L}\mathcal{T}\mathcal{E}\mathcal{X}$* , 3rd Ed. Addison-Wesley, Reading, Massachusetts, 1999.
- [21] Leslie Lamport: *$\mathcal{L}\mathcal{T}\mathcal{E}\mathcal{X}$* . Addison-Wesley, Reading, Massachusetts, 1994.
- [22] Frank Mittelbach: *An extension of the $\mathcal{L}\mathcal{T}\mathcal{E}\mathcal{X}$ theorem environment*. 2000.
[c:/texmf/doc/latex/tools 디렉터리에서 theorem.dvi 파일을 찾아 인쇄하면 된다.]
- [23] Christian Schenk: *Mi $\mathcal{K}\mathcal{T}\mathcal{E}\mathcal{X}$ 2.1 Manual*. 2001.
[c:/texmf/doc/miktex 디렉터리에서 miktex.chm 파일을 찾아 인쇄하면 된다.]